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 인터뷰

"성패 떠나 시도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럽다"

이소연 박사는

- ▶출생지: 광주
- ▶생년월일: 1978년 6월2일(양력)
- ▶가족사항 : 1남2녀 중 맏이
- ▶혈액형 : A형
- ▶키 : 164㎝
- ▶몸무게 : 58㎏
- ▶성격 : 명랑 쾌활 사교적 낙천적
- ▶취미 및 특기 : 영화·음악 감상, 노래, 태권도
- ▶학력 : 송원초교, 송원여중, 광주과학고, KAIST 기계공학 학사·석사, 바이오 및 뇌공학 박사
- ▶소속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 ▶수상 : 세종문화상 특별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2008 닮고 싶은 스타과학자상
- ▶기타 : 과학기술 홍보대사,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홍보대사

"발사체 원천 기술 확보 큰 도움 / 우주 선진국 러시아 의존 불가피 | 제2 이소연 원할수록 빨리 탄생 / 우리 과학자들에 계속 응원을"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1·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사가 '나로호(KSLV-1)' 발사의 역사적 순간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았다.

이 박사는 25일 광주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나로호 발사는 성패를 떠나 시도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그 도전과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응원을 보냈다.

이 박사는 또 "첫 발사 성공 확률이 30%도 안되는 만큼 만약 실패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1일간 체류하며 각종 우주과학 실험 임무를 수행한 이 박사는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스연구소에서 국제우주대학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주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있다.

-건강과 근황은.

▲건강은 문제 없고 좋다.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스연구소에서 2개월 과정의 국제우주대학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 우주과학기술의 한 획을 긋는 나로호 발사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 잠시 귀국했다. 나로호 발사 다음날 다시 출국할 예정이다.

-국제우주대학 여름 프로그램은 뭔가.

▲국제우주대학(ISU : 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의 SSP(Space Study Program)다.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130여명의 인재들이 수업하고 있다. SSP는 2개월 과정이며, 참가자들은 우주과학자, 위성발사체 개발자, 학생, 국제변호사 등 다양하다. 그곳에서 우주법, 우주정책, 우주경제, 우주산업 등 우주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사실 나는 우리 나라 유일의 우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대해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우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20여년 동안 SSP에 참여한 한국인은 채 10명도 안된다고 들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

-나로호 발사가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위성 발사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던 1957년만 해도 우리 나라는 끼니를 걱정했었다. 그런 나라가 지난해 우주인을 배출하고 이제는 위성까지 쏘아올린다고 하니 세계가 놀라는 것이다. 성패를 떠나 시도 자체가 충격이고 경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SP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료들과 교수들도 이 같은 도전과 용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나로호에 대한 개인적 소감은.

▲나로호 발사를 기다리는 지금이 지난해 소유즈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을 갈 때보다 더 가슴이 뛴다. 지난해 우리 나라 첫 우주인으로 우주에 갈 때는 설령 잘못되더라도 나 하나 다치면 그만이었지만 나로호 발사는 우리 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 측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러시아의 기술 도움을 받는 것 아닌가. 오리지널 자기 기술이 아닌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부족하다는 열등의식 탓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가 세계 1위인 반도체 기술을 생각해보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 노하우를 얼마의 돈을 받는다고 송두리째 넘겨줄 수 있겠는가. 우주 개발을 놓고 우리 나라와 러시아를 비교하는 것은 걸음마를 막 뗀 꼬마와 100m 달리기 1인자인 우사인 볼트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공동 개발 과정은 걸음마 연습이다. 걸음마 연습을 더 열심히 해 빨리 걷고 뛸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우주에 다녀온 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엔 우주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우주를 다녀온 뒤 우주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컴퓨터, 휴대폰, 위성TV, GPS, MRI, 정수기, 전자레인지, 선글라스 등 흔히 쓰는 물건들이 우주기술의 부산물들이다. 그동안 우주기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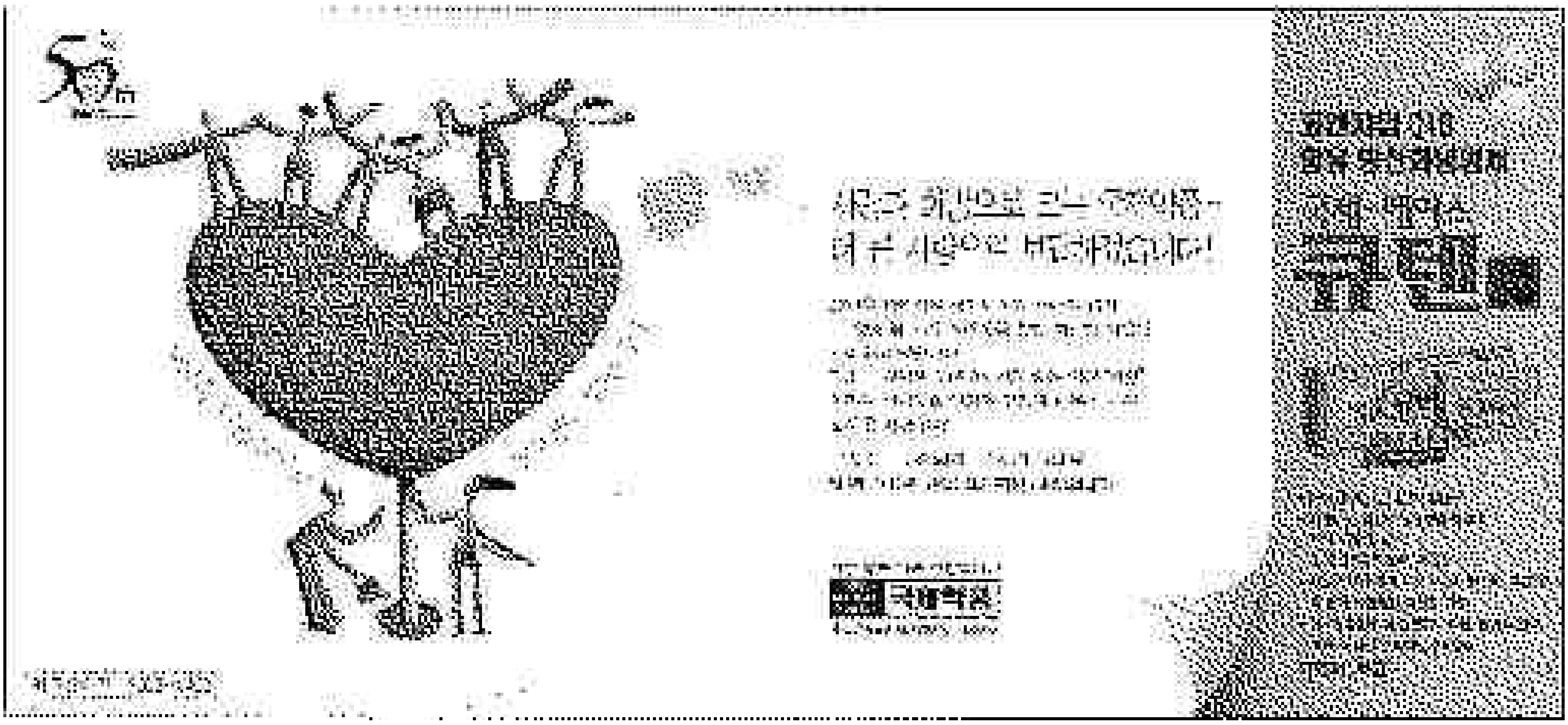
-제2의 이소연은 언제쯤 나올까.

▲국민들이 마음 속 깊이 원할 때 제2의 이소연 탄생은 빨라진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원할 때 우주인도 나오고 로켓도 나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나로호 발사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나로호 발사는 성패를 떠나 시도하는 용기만으로도 이미 전세계 우주과학계에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그 분들은 우리 나라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칭찬받아 마땅하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첫 발사 성공 확률이 30%도 안되는 만큼 만약 실패할 경우에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응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우주과학기술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10초~20초 생각하는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 우주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